# 통합예술교육을 위한 활동적 공간 요소에 관한 연구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공간 운영 중심으로

# A Study on Active Spatial Elements for Integrated Art Education

Focusing on the Spatial Operation of West Seoul Arts Center for Learning

주 저 자 : 최정필 (Choi, Jeung Pill) 홍익대학교 디자인공예학과 공간디자인학 전공 박사수료

교 신 저 자 : 이재규 (Lee, Jae Kyu)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교수 jagalit@naver.com

https://doi.org/10.46248/kidrs.2022.3.300

접수일자 2022. 8. 25. / 심사완료일자 2022. 9. 15. / 게재확정일자 2022. 9. 25.

## Abstract

Arts education has huge impact on our life today. Integrated art education does not stop at simply fostering specialized artists, but is becoming a holistic education that enhances emotions and character through art experiences, while serving as the foundation for this. It aims operating cultural arts education and cultural arts education spaces in the future.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 of integrated art education and activity space elements, and it aims at using the results to search for sustainable utilization plans for the West Seoul Arts Center, which is the first cultural arts space established in Korea. The research method included case studies of foreign integrated arts education, and upon studying the regional and soci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art experience activities per development stage in everyday life, it was possible to check integration with the local society for spacial elements according to the external environment, integration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reciprocal integration with life, as well as the features of variability, openness, and flexibility that are spatial elements according to the external environment. The West Seoul Arts Center for which such external and interior spatial elements apply will fulfill its role as a platform for regional hub cultural arts education space by improving friendly accessibility as an open space by establishing a citizen art gallery environment filled with the creative arts of citizens, while improving design that applies variability, openness, and flexibility with an image of an 'empty space in nature' considering the natural ecological environment and establishing a community activity space containing the local features.

## Keyword

Integrated art education(통합예술교육), Spatial composition(공간 구성), West Seoul Arts Center for Learning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 요약

오늘날 문화예술교육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예술가 전문양성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예술 체험을 통해 감성과 인성을 성장시켜주는 전인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근원이 될 수 있는 통합예술교육은 앞으로의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공간 운영의 지향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예술교육의 개념과 활동적 공간 요소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를 국내 최초로 조성된 문화예술교육 공간인 서서울예술교육센터의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국외의 통합예술교육 사례 분석과 지역과 사회적 환경의 특성, 그리고 일상에서의 발달 단계별 예술 체험 활동을 통해 적용된 공간적 요소를 연구한 결과, 외부적 환경에 따른 공간 요소인 지역사회와의 통합, 자연 환경과의 통합, 삶과 상호작용적 통합 및 공간 내부의 통합적 예술교육 활동을 위한 공간 요소인 가변성, 개방성, 유연성의 특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와 내부적 공간 요소가 적용되는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지역의 특성을 담은 커뮤니티 활동공간 조성과 자연 생태적 환경을 고려한 '자연 속 빈 공간'의 이미지에서 시민의 예술 창작으로 채워가는 시민 미술관 환경 조성, 그리고 가변성, 개방성, 유연성의 요소를 적용한 디자인 개선을 통한 열린 공간으로 친화적 접근성을 높여 권역적 거점 문화예술교육공간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다.

---

## 목차

1.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1-2. 연구 범위 및 방법

## 2. 통합예술교육의 개념과 활동성

2-1. 통합예술교육의 개념과 정의

2-2. 통합예술교육의 활동성

2-3. 통합예술교육의 필요성

## 3. 통합예술교육을 위한 활동적 공간 요소

3-1. 외부적 공간 요소

3-1-1. 지역사회의 연계성

3-1-2. 자연 환경성

3-1-3. 삶과 상호작용성

3-2. 내부적 공간 요소

3-2-1. 가변성

3-2-2. 개방성

3-2-3. 유연성

## 4. 서서울예술교육센터의 활동적 공간 요소

4-1. 서서울예술교육센터의 공간적 특성

4-2. 서서울예술교육센터의 활동적 공간 요소

## 5. 결론

## 참고문헌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팬데믹 시대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미래 산업기술이 수년을 앞서는 현상이 발생 되면서 본격적으로 온라인 생활화와 비대면이 일상화가 접어들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삶 속의 편리함 및 개별적 사고와 생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사회에서 사람 간, 지역 간 소통의 단절과 사회적 교감이 낮아지는 현실에 대응하는 것 또한, 우리의 과제로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본래의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을 기반으로 한 예술적 체험과 예술적 상호관계 맺음을 통해 감성과 인성을 키워주는 전인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일상적 삶 속의 다각적 예술 체험 활동, 사고와 창작 표현의 문화예술교육은 지금의 현대 생활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교육으로 진화되고 있다.

팬데믹 이후의 교육을 '교육하는 시대에서 학습하는 시대'라고 한다. 문화예술교육 또한, 예술을 통해 다양한 학습하는 형태의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 장르의 통합, 예술과 교과의 통합, 예술과 기술의 통합, 지역사회와의 통합, 자연과 예술의 통합 등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둔 통합예술교육은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통합예술교육의 개념 정의가 모호하고 통합적 관점의 예술 활동에 대한 본질적 접근과 목적에 이루어지지 않고 도구적 또는 수단적 예술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본 연구는 통합예술교육의 개념적 정리와 통합예술교육 활동적 행위를 적용한 문화예술교육 공간 구성의 요소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 공간의 미래 지향적 운영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국내 최초로 조성된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인 서서울예술교육센터를 공간 운영을 대상으로 통합예술교육에 필요한 활동적 공간 요소 연구를 통해 지역 거점에서 문화예술교육 공간의 앞으로 운영에 대한 공간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통합예술교육의 활동을 위한 공간 요소에 대한 연구로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서서울예술교육센터의 운영방안의 지향점 둔 연구로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 공간 운영방안을 위한 정책자료, 학술지,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분야별 도서, 온라인 포털 자료 등의 문헌 조사와 더불어 지향적 요소에 대해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포함한다.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러 선행 연구와 문헌을 통한 통합예술교육의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현시대에 맞추어 통합교육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방향을 위한 정의를 정립한다. 그리고 이렇게 정립된 정의에 근거하여 통합예술교육에 필요한 활동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의미와 범위 그리고

요소 등에 대하여 국가별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통합예술교육의 활동성을 위한 요소를 외부적 요소, 내부적 요소로 구분하고 외부적 공간 요소를 지역사회의 연계성과 자연 환경성, 개인적 삶과 연계한 요소와 프로그램 운영 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한다. 그리고 실험과 탐구적, 비공식적, 개별과 그룹 활동을 기반으로 한 내부적 공간 요소로 가변성, 개방성, 유연성의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 통합예술교육 활동적 공간 요소의 운영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인하고 지향점을 모색하면서 본 연구를 마친다.

## 2. 통합예술교육의 개념과 활동성

### 2-1. 통합예술교육의 개념과 정의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적 체험을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한 질적 충족을 목적으로 하며, 예술적 체험의 본질은 미를 만들어가는 의지와 감정 표현을 위한 행위이다.

미적 의지와 감각 표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연구, 개발, 실연을 통해 창의적 표현, 커뮤니티 활동과 협력, 자기 통제력, 비판적 사고, 창의력, 표현력 등 많은 생각에서 행해지는 통합적인 관계의 유기적 활동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통합(統合)'은 '거느릴 통'과 '합할 합'으로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침'의 사전적 의미[1]를 가지고 있으며 'Integration'의 사전적 의미 역시 '둘 이상의 것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결합하는 행위 또는 과정'[2]으로 통합예술교육의 서로 다른 영역이 결합하여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과정 또는 완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현대 사회에 있어서 '통합'은 포스트모던 이후 삶과 함께하며 인성을 향상시켜주는 요소로 내포되고 있으며, 허정임(2014)은 체험으로서의 예술 중심 통합교육 연구에서 현대 사회에서도 통합적 사고에 의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것 또한, 시대적 요구로 이러한 통합적 사고의 교육 방법은 문화예술교육에 반드시 필요하다.[3] 그러면 예술 체험을 통한 다양한 사고를 기반으로 한 '통합예술교육'은 예술을 매개로 전인적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려는 총체적 접근으로 전인적 성장과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지향하는 활동으로 파악될 수 있다.[4] 즉 인성과 감성을 성장시켜주는 전인적 교육에서의 예술적 체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예술 체험을 통하여 창의성과 표현력, 비판적 사고, 커뮤니티 협력 등의 다양한 사고를 성장시키는데 원동력 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의미로 문화예술교육의 기본 목표를 전인교육으로 삼는다면 좁은 의미에서 '통합예술교육'은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는 전인교육에 부합하고, 넓은 의미로는 다양성과 복잡성을 요구하는 지금의 사회 시점에 맞춰 기존에 있던 문화예술교육에서 확장하여 새로운 교육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5] 또한 통합예술교육은 이전의 예술 장르 또는 예술 체험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고와 창의적 표현을 통한 학습자 중심으로 전개되어 가는 예술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협업과 인적 관계를 맺어주는 중요한 요소로 확장된다. 그리고 한편으로 '통합예술교육'의 의미를 "예술을 '통해' 그리고 '함께' 배우는 것으로서의 통합, 커리큘럼의 연결 과정에서의 통합, 협력적 참여로서의 통합"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6]로 구분되어 정리될 수가 있으며 또한, 문화예술교육은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에서의 통합은 부분들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로 합치고 융합하는 것으로 교과 또는 장르 간의 경계를 넘어 다각적으로 결합으로써의 교육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이다.[7]

이상 통합에 관한 여러 연구자들의 통합예술교육은 교과와 장르 간의 경계를 넘어 둘 이상의 다각적인 결합을 통한 예술교육 과정 또는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예술적 체험을 통해서 사회와 인간을 이해하고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지향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2.5.9.). URL: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2) Cambridge Dictionary (2022.5.9.). URL: https://dictionary.cambridge.org/ko//%EC%82%AC%EC%A0%84/%EC%98%81%EC%96%B4/integ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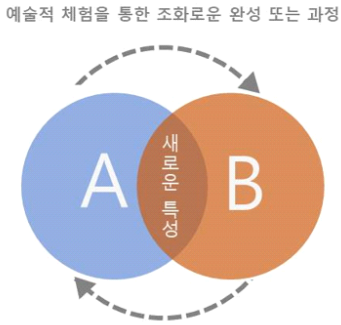
3) 허정임, 체험으로서의 예술 중심 통합교육 연구, 미술교육연구논총, 2014, Vol 18, p.55.

4) 백령, 통합예술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문화재단, 2015, p2.

5) 이목련, 청소년을 위한 통합예술교육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12.

6) 곽덕주, 박혜련, 문화예술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으로서의 '통합'과 '융합' 개념 탐색: 실험적 소고, 문화예술교육연구, 2021, 제16권 제1호, p.201.

7) 최명림, 통합형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p.19.




**[그림 1] 통합예술교육의 개념**

본 절에서 통합예술교육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예술적 체험을 통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특성이 결합하여 조화로움을 이루어 가는 과정 또는 완성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특성이 도출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다양한 사고와 예술 체험으로부터 시작된다. 통합예술교육은 교육자와 학습자 그리고 활동공간에서 나타나는 많은 활동적 요인에 따라 다각적 사고와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통합예술교육의 활동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성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활동적 요소에서 통합적 사고와 행위의 유기적 관계에서 조화를 통한 새로운 특성에서 찾아간다.

### 2-2. 통합예술교육의 활동성

통합예술교육의 활동성은 '예술 창작과 습득을 위한 행위의 영역'을 넘어 예술 체험을 기반으로 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와 다양한 사고에서의 의미를 두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커뮤니티 등과의 소통과 인적, 물적 관계 그리고 보편적 삶 속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합예술교육에서의 활동성은 예술적 체험에서 시작하여 그 과정 안에서 여러 관계와 사고, 그리고 상호적 활동을 통해 새로운 특성이 도출한다. 본 항에서는 통합예술교육의 활동성에 대한 구체적 의미와 활동의 범위, 요소를 실행하고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미국의 통합예술교육은 1918년도부터 교과서 중등 교과서에서도 명시 되었는데 '통합예술(arts integration)', '다른 학문 분야와 제휴된 교육(interdisciplinary education)', '통합된 커리큘럼(Integrated curriculum)', '상호 연계된 커리큘럼(correlated curriculum)', '녹여진 커리큘럼(fused curriculum)', '커리큘럼 안(project curriculum)' 등으로 학생들이 성인의 삶을 준비시키는 의미로 접근하고 있다.[8] 미국 통합예술교육은 예술과 교과의 통합으로 학교와 사회소통으로 지역의 예술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교육과정 안에서 다양한 예술적 체험을 통하여 학습자의 다각적 사고와 창의적 표현의 역량을 키워주며, 이를 통해 감성과 인성을 향상시켜주는 데 통합예술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다. 청소년 미디어 프로그램에서는 학교, 지역센터,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지역 커뮤니티 협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 기술과 예술적 통합교육을 통해 디지털 아트에 대한 인식 개선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을 대상 특화된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통합예술교육은 예술과 교과를 통합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소통과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감성과 인성을 향상시켜주는 커뮤니티 실천예술을 지향하고 있다.

한편 스웨덴의 경우에는 평등과 민주주의 교육의 기초로 통합적 학제 시스템과 순환적 평생교육 시스템의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다. 1960년대 접어들면서 전통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의무교육제도를 기본으로 초·중교육 9년, 고등교육 3년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교육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체계 안에서 예술적 체험을 기반으로 건축, 매스 미디어, 테크놀로지, 생명과학, 자연환경 등 사회적 변화와 함께 통합적 사고의 교육으로 전문지식과 기술 그리고 다양한 사고로 평생교육으로서 자아성장에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하고 있다. 스웨덴의 통합적 교육에서는 개방형의 공간 플랜에서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각 기능별 학습공간을 이어주기 위한 활동공간의 위치를 건물의 중앙과 공용공간에 위치를 두어 각 공간별 활동을 연계하며,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구성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복도와 학습공간의 관계를 재해석하여 통합 활동적 공간의 기능을 더 해 주고 있다. 정해진 공간보다는 벽의 개념적 요소를 지양하여 자유로운 활동의 유도하기 위함으로 공간 구성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웨덴은 분야별 통합의 의미에서 공간은 자유로움과 다양한 행위를 유도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은 유아교육에서 핵심은 언어능력 촉진, 인성 신장, 사회성교육과 놀이 활동으로 구성하고 있어 놀이 중심의 사회성 함양을 목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에서는

8) 강양은, 통합예술교육에 관한 연구(미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2013, Vol. 9, p.2.

인문교육과 기술교육의 조화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교육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특이점은 이론과 실무의 체험으로 특정 내용에 대한 이론 수업과 예술적 체험의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며 커뮤니티 활동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 학습공간은 단순한 '배우는 장소'가 아닌 '삶의 공간'이라는 의미로 단지 지식을 얻는 목적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 공간의 이미지 인식에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 간의 공동학습, 학생 스스로가 결정하는 전반적인 행위를 위한 '큰 학교 내 조그만 학교' 체계 운영이 그 사례이다. 그리고 학습공간에 있어서는 친환경적 교육공간을 지향하여 외부 공간의 녹지대, 정원 공간을 활용하여 생태학적 교육으로 활용되기도 한다.[9)]

호주에서는 다수의 예술 과목을 교육하는 '박스 힐 커뮤니티 아트 센터(Box Hall communty Arts Centre)은 통합형의 예술교육을 중요성을 인식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아트 센터와 지역사회의 협업과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다양한 이주민으로 구성되어있어, 지역 활성화 지원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의 경제적 성장, 사회적 형편성, 문화예술의 향유 제공, 시민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반면 공교육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예술과 교과의 통합에서 시작한 한국의 통합예술교육은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문화적 삶의 질적 향상'과 '사회적 역량 강화' 의 정책적 비전을 두고 있으며,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서울아젠다'에서는 전문적인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지속적 요소 예술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어린이와 청소년의 감성적, 미적, 사회적, 인지적, 창의적 능력의 조화로운 계발의 근간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을 주창하며, 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및 세대 간 통합교육을 촉진하고 장려, 문화예술교육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교육 리더십을 제고 할 수 있는 역량을 계발 등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2'에서는 '지역 기반의 생태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교육 다각화', '문화예술 기반의 고도화'의 추진 전략으로 삶 속에 예술의 보편적 활동의 통합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통합예술교육에 있어 중심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영역의 통합을 통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창의성을 향상시키며, 커뮤니티 학습과 협업, 문제 해결 능력, 자기 통제력, 사회적 학습 능력을 증진 시키고 있다. 1990년대에부터 시작한 통합예술교육은 예술과 교과 통합으로 공교육의 다양성과 학업 능률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후 2000년대 예술가의 교육 참여 확대를 통해 예술 장르 간의 통합으로 확대되었으며, 계속되는 진화를 통해 문화인류학적 통합, 지역사회와의 통합,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기술 간의 통합, 자연과의 통합적 예술교육 등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으로 성장하고 있다.

**[표 1] 나라별 통합예술교육의 활동적 특성**

| 구분 | 범위 | 요소 | 특성 |
|---|---|---|---|
| 미국[10)] | 학교 및 지역 사회, 기관, 민간 단체 등과 연계 및 네트워크 | 학교 교과 통합 및 지역 사회 소통과 협력을 통한 파트너쉽 운영 체계 구축 | 지역 주민 대상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사회 실천 예술 가치 확산 등 지역 환경 외부적 요소 적용 |
| 스웨덴[11)] | 사회적 변화 및 개방형 공간 플랜, 커뮤니티 공간 구성 | 다양한 예술적 사고와 전문지식, 기술을 통한 평생교육 지향 및 자율적 공간 구성 | 학습자 자유의지 존중 및 다양한 행위을 위한 공간 내부의 개방적 배치와 가변적 기능 도출 |
| 독일[12)] | 사회와 삶의 상호적 관계, 친환경적 학습공간, 사회 구성원 공간 인식 | 놀이 중심의 사회성 함양(유아), 생태학습, 인문교육과 기술교육의 조화 | 외부 공간 연계 생태학적 교육 활용과 공간 간 유연성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교육 지향 |
| 호주[13)] | 지역사회와 협력, 지역 커뮤니티 활동, 다양한 통합 예술교육 경험 | 지역 활성화 지원 및 지속 가능한 방안, 다계층을 위한 사회문화예술 교육 노력 | 다양한 예술교육 경험을 통한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노력 및 계층별 통합 유도 |
| 한국[14)] | 학교 교과와 예술 장르의 통합 및 사회적 환경의 영역에서의 통합 | 예술과 교과 통합, 지역사회 통합, 미래 지향적 사고와 통합, 인류 문화학적 통합 | 다각적 통합예술교육을 통한 생애주기별로 다차원적 효과 도출 및 지역, 사회적 문제 해결에 노력 |

9) 전영훈 외, 서울교육공간플랜, 서울시교육청, 2013, pp.239-242.

표 1은 이상으로 살펴본 나라별 통합예술교육 활동적 특성을 종합한 것으로 통합예술교육은 예술과 교과의 통합에서 범위가 확대되어 지역사회와의 통합 및 자연과 삶과의 상호적 관계에서 통합예술교육으로 그 범위가 환경 외부환경적 영역까지 넓혀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학교 교과 통합 및 지역사회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활동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으며, 스웨덴은 공간 내부의 개방적 배치와 가변적 기능을 통한 자율적 공간 구성으로 활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은 생태학적 교육 활용과 공간 간 유연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 발전교육 지향을 위한 활동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활동적 공간 요소의 특성을 받아들여 다각적 통합예술교육을 통한 생애주기별로 다차원적 효과 도출 및 지역, 사회적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통합예술교육의 활동성을 분석해보면 지역 및 환경적 측면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활동적 특성과 예술교육 콘텐츠 활동 운영 측면에서의 내부적 요소에서 나타나는 활동성으로 구분될 수가 있다. 즉 미국이나 스웨덴의 통합예술교육 활동의 경우에서 학교와 지역 파트너쉽 운영 체계로 만들어가는 개방적 환경 조성을 통해 커뮤니티 영역이 조성되는 반면에, 독일 경우에는 실내 공간과 외부 공간 연계를 통한 유연한 통합을 통해 공간적 유기적 관계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여러 장르 통합과 교과와의 통합, 지역사회 통합으로 다각적인 통합예술교육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합예술교육을 위한 활동적 공간 요소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3장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 2-3. 통합예술교육의 필요성

통합예술교육은 예술 체험 교육을 기반으로 다양한 영역 또는 특성의 통합을 통해 사고와 참여로 인간의 감성과 이성의 전인적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통합예술교육에서의 활동성은 다각적 측면에서의 물리적 관계와 소통이 핵심적 역할을 하는데 장르별, 교과, 기술 간의 통합에서 확장되어 지역사회와의 통합, 친환경적 교육 간의 통합, 사회적 역량 측면에서의 활동적 통합 등으로 확정되어 가고 있다. 통합예술교육의 활동성은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창의적 표현, 토론, 발표, 탐구, 실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 활동으로 현대 사회에서의 사회적 문제 해결과 삶에 대한 지향점 두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진화된 예술교육 확장에서 공간은 '제3의 교사'로서 다양한 사고와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열린 공간 구성과 실내 · 외 공간 간, 기능적 공간 간의 유기적 관계에서의 공간 운영의 유연성을 통해 자기 통제력, 창의적 표현력, 사고력, 커뮤니티 협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진보적인 통합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 3. 통합예술교육을 위한 활동적 공간 요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2' 정책 환경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미적 감성 개발, 창의성 증진, 공간 및 소통 능력 향상 등 문화예술교육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책적 환경 안에서 문화적, 사회적 실천 예술교육은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 강화와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확대되어 강조하고 있다.[15] 이와 더불어 문화예술교육 공간은 지역과 연계하는 커뮤니티의 거점 공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이러한 커뮤니티 공간의 지역 거점이 되기에는 커뮤니티 또는 활동공간 개선이 필요하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러한 공간의 변화가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문화예술교육 공간에서의 활동적 공간 개선에서 실내·외부공간의 상호적, 상보적 관계의 유기적 운영은 문화예술교육 공간의 미래 지향점의 지속 가능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 또한, 공간 변화와 더불어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한 방향성도 검토되어야 하는데, 문화예술 공간 안에서의 통합적 사고와 주제, 영역의 예술교육은 미래 지향적 공간 운영에 중요한 요소로 구심점 될 것이다. 현재 운영 또는 개관 예정이 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공간은 2016년도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조성을 시작으로 서울시에서는 교육청 서울창의예술센터를 포함

10) 강양은, 통합예술교육에 관한 연구(미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2013, Vol. 9, pp.4-6.

11) Design Indaba(2022.8.17.).URL: https://www.designindaba.com/articles/creative-work/sweden%E2%80%99s-vittra-school-future-learning

12) 정미숙, 독일 지속가능한 발전교육(ESD) 20년의 성과와 과제, 환경교육 33권 4호, 2020 pp.384-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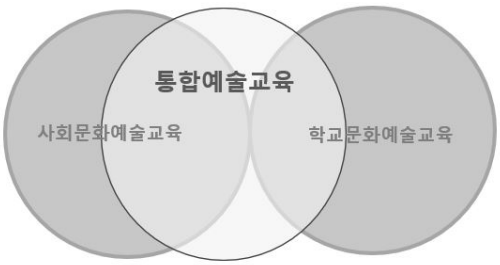
13) 김혜주, 통합예술교육 사례 분석 및 효과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pp.28-29.

14) 이목련, 청소년을 위한 통합예술교육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p.15-18.

15)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2, 문화체육관광부, 2017, pp.12-19.

한 8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전주 팔복예술공장 '꿈꾸는 예술터'를 시작으로 14개의 문화예술교육 공간이 운영 또는 조성 예정이다. 문화예술교육 공간은 초기에는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서 점증적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16] 확대되어 지역 연계 프로그램 확장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이러한 변화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체험 위주의 문화예술교육에서 벗어나 통합적 사고의 예술교육의 운영 방향을 지향하기에 이르렀는데, 통합예술교육에서 나타나는 활동적 특성들은 크게 환경적, 사회적 여건에 의한 외부적 활동 요소와 통합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의 내부적 요소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이는 거꾸로 통합예술교육이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외부적 환경 요소 즉 외부 사회와의 연계와 협력 등을 통한 통합적 시도 그리고 기관의 공간 내부적 요소인 예술교육 콘텐츠 운영 활동 및 장르와 공간 등의 탈중심적 통합으로 구성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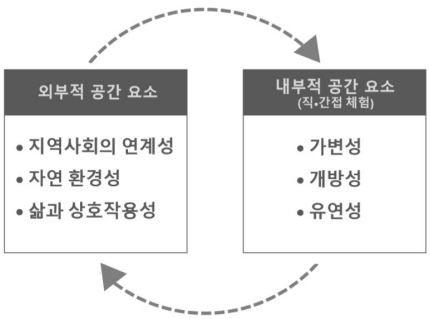



**[그림 2] 통합예술교육 관계적 이해**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공간에서 통합예술교육의 활동적 공간 요소를 본 연구에서 외부 환경적 측면에서의 공간 요소와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의 내부적 요소로 구분하였다.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에서 지역 내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협력과 활용, 지역 기반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추진[17]은 지역과 지형적 특성과 다양한 지역 활동을 고려한 외부적 환경 요소에 대한 지역 거점의 문화예술교육 공간에 대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문화예술교육 공간에서의 가지고 있는 지역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구심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문화예술교육의 수요자인 시민들과 전문가 참여로써 문화예술교육 공간 디자인은 개방성과 가변성, 유연성을 바탕으로 예술적 감성과 창의성 유발에 적합하여야 하는데,[18] 이러한 공간 내부적 요소에서 유기적 관계를 통해 통합예술교육 다각적인 사고와 활동의 초석이 되며, 문화예술교육의 공간 전문성과 접근성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외부적 요소는 문화예술교육 공간에서의 외부 환경적 요소로 지역 거점 공간에서의 지역사회와 연계와 사회적 이슈를 담은 자연환경과 예술의 통합 그리고 보편적 삶과 상호적 관계에서 통합예술교육을 외부적 측면에서 거시적 관점의 공간 요소로 보고 있으며, 내부적 공간 요소는 프로그램 운영의 미시적 관점에서의 실내·외 공간에서의 통합예술교육의 활동 중심으로 한 공간적 요소이다. 외부적 공간 요소는 앞선 나라별 통합예술교육의 활동적 특성에 나타난 내용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연계성, 자연 환경성, 삶의 상호작용성 3개 요소로 구분하였고 내부적 공간 요소는 문화예술교육 공간의 통합예술교육 활동성을 근거로 하여 가변성, 개방성, 유연성으로 구분하였다.

가변성은 통합예술교육에서 열린 공간의 다양한 예술 체험 활동과 사고의 발상에 의한 변화적 가능성이 있는 공간 분위기를 공간 요소에 적용하고, 개방성은 물리적, 심리적, 기능적 측면에서의 커뮤니티 활동, 개별과 비공식적 활동, 탐구와 실험적 행위에서의 공간적 요소로 해석되며, 유연성은 공간 간의 유기적 관계에서의 기능을 통한 공간의 확장을 마련한다. 외부적 공간과 내부적 공간 요소는 공존의 관계에서 상호적 작용을 통해 공간의 확장성과 거점형의 예술교육 플랫폼 공간으로 성장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능성을 가진다.




**[그림 3] 공간적 요소의 이해**

1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정의), 문화체육관광부, p1.

17)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2, 문화체육관광부, 2017, p.12.

18) 김혁진 외, '2017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예술교육진흥원, 2018, p.146.

### 3-1. 외부적 공간 요소

#### 3-1-1. 지역사회의 연계성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기관, 단체, 예술가, 지역 활동가 등 네트워크와 다양한 지역의 문화시설과 연계되어 지역과 접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 인적 · 물적 관계에서 학습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장소적 역사성, 지형적 특성, 문화와 삶의 터전으로의 공간 정체성, 산업적 공간으로서의 지역 등 소재로 지역의 문제의식,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 지역의 역사, 환경과 지형의 특성 등과 관계되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과 사람들이 상호적 관계에서 활동과 지역문화 향유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공간에서는 지역사회와의 통합은 불가피하다.

거점 문화예술교육 공간[19]의 플랫폼으로서 성장을 위해서라도 지역사회와는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통합은 필요하다. 통합적 거점 문화예술교육 공간과의 지역과 연계의 핵심적 활동에서는 커뮤니티 형성과 상호적 관계가 중요하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통합형 문화예술교육 공간의 물리적인 연계에 대한 공간의 관계와 프로그램 운영에 관계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를 이루어야 한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지역적 특성과 예술 프로그램 운영의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를 좁혀지면서 지역사회와 친근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여기서 커뮤니티는 관계에서의 협력으로 발전되어지는 과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예술적 체험이 매개가 되어 관계와 소통을 잇는 과정을 지나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또는 성장을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이를 정리하자면 지역의 커뮤니티 연계성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적 체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지역사회의 연계성에 대한 사례로는 미국의 17주 40개 지역에서 운영하는 케네디 센터의 턴어라운드 아츠(Turaround Arts)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 턴어라운드 예술학교와 예술가가 파트너 관계를 맺고 학생과 교사가 직접 협력하고, 학부모와 학교를 커뮤니티에 참여시키며, 학교에 변화에 대한 예술의 긍정적인 영향을 지향하게 된다.[20] 지역사회와 학교, 예술가 협업으로 공연, 전시, 예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친화적 관계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파트너의 예술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통합예술교육 활동을 하면서 커뮤니티 아츠를 통해 지역과 소통하는 예술 창작 활동을 하게 된다. 호주의 멜버른 인근에 있는 박스 힐 커뮤니티 아트 센터(Box Hall communty Arts Centre)는 지역 예술을 기반으로 커뮤니티 예술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술로 함께 모여, 즐기는 소통 공간으로 형성하였다. 청소년들과 예술가 협업을 통해 물탱크 등과 같은 주변 오브젯을 대상으로 한 벽화, 다문화주의를 반영한 지역 환경의 정체성을 반영한 그래피티 커뮤니티 아츠를 통해 관계를 맺고 지역과 예술가들의 파트너쉽을 통해 유기적 관계에서 지역사회 실천예술로 성장하게 되었다.

**[표 2] 지역사회와 연계성 사례**

| 턴어라운드 아츠(미국)[21] | 박스 힐 커뮤니티 아트센터 (호주)[22] |
|---|---|
| | |

이처럼 통합예술교육을 위한 활동적 공간은 지역사회와 예술의 통합 즉, 지역 주민, 지역 공공기관, 예술가들 등과의 협력과 친화적 접근으로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에서의 필요한 요소나 목적을 가지고 지역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통합예술교육의 콘텐츠가 개발되고 운영이 된다. 지역과 통합예술교육 운영을 통해 지역의 네트워크는 지역사회가 담고 있는 이야기 또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을 마련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예술적 체험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지향하는 통합예술교육의 새로운 특성에 부합될 것이다.

#### 3-1-2. 자연 환경성

자연생태는 문화예술교육 공간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19) 문화체육관광부 '꿈꾸는 예술터' 조성자료를 근거로 거점형 예술교육 공간은 광역 지자체 단위로 조성되는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3,000㎡이상으로, 서울시에서는 권역별 지역 거점으로 운영이 된다.

20) Turnaround Arts. (2022.8.18.). URL: https://turnaroundarts.kennedy-center.org/artists/

21) Turnaround Arts. ((2022.8.18.). URL: https://turnaroundarts.kennedy-center.org/

22) Box Hall communty Arts Centre. (2022.8.3.).: URL: https://www.bhcac.com.au/spa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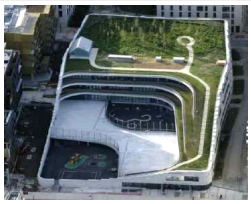
작용하고 있으며, 자연생태와 예술의 통합으로 한 콘텐츠 개발과 운영으로 통합예술교육에서 공간을 통한 활동성을 지향하려는 노력은 코로나19 이후에 더욱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다. 실내에서 공간에서 외부 공간에서의 활동에 대한 중요도와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감염의 불안한 실내 공간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식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간적 대안으로서 외부공간은 이러한 감염 문제 속에서 재조명이 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공간에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될 것이다.

또한, 자연생태와 예술교육의 통합 프로그램은 감수성과 정의적 영역을 발달시키기 위한 환경 문제인식도 할 수 있다. 생태 유아교육에서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 요소는 생명 가치의 실현과 아동의 몸의 움직임에서 마음과 영혼의 조화로는 내용까지도 내포되어 있다. 청소년에게도 자연생태 예술 체험의 통합적인 면에서 자연생태의 가치를 확립하고, 이에 대해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자연생태와 통합 사례로 먼저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있는 볼로뉴-비아쿠르 공립 초등학교(École des Sciences et de la Biodiversité, Boulogne-Billancourt)는 2014년 설계공모를 통해 건축한 학교로 설계부터 과학과 친환경으로 가치와 의미를 확립하여 개방과 소통의 공간적 구조를 강조하였다. 이 학교 가지고 있는 자연과 연계된 공간 특성으로는 각 교실에서 놀이터와 생태정원 연결되어 있으며, 외부공간의 생태학습장을 통해 자연에 대한 친근감을 더할 수 있다.

활동적 특성으로는 지역 주민들과 상생과 공존의 장을 조성하여 자연을 통한 서로의 상호적 관계로 지역환경을 조성한다.  또 다른 사례를 들자면, 독일의 겔젠키르헨-비스마르크에 위치한 1998년에 설립한 에반겔리쉐 종합학교(Evangelische Gesamtschule)은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함께 만들고 함께 생활하는 이념으로 친환경적 학교로 성장 하고 있다.

에너지 규정에 의한 효율적 건축공간과 활동적 특성으로 친환경적으로 설계되어 녹지대와 학교정원을 교육장소로 생태학적 학습 진행과 커뮤니티 학습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생태학적 학습을 통해 확장된 친환경 교육공간들이 창출되며, 이 교육공간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 실내 마감을 하여 공간의 따뜻함을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 간의 친환경적 커뮤니티 공간 안에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자연 사물과 현상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있다.

**[표 3] 자연 환경성 사례**

| 볼로뉴-비앙쿠르 공립 초등학교(프랑스)[23] | 에반겔리쉐 종합학교(독일)[24] |
|---|---|
|  | |

국내에서도 자연 생태학습장 조성은 앞으로 학습공간에서의 혁신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2020년 교육부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계획이 발표되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도 자연생태와 예술의 통합으로 한 콘텐츠 개발과 운영이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미래 지향적 예술교육에서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자연적 환경은 공간적 적용에서 중요하게 다가선 것이다. 자연적 요소인 빛, 그림자, 소리, 색, 공기 등은 문회예술교육 콘텐츠에서 통합적 요소로 작용 되며 공간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외부 공간 조성이나 내부 공간에서의 자연 생태적 환경 조성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미래 지향적 학습공간에서 외부와 자연적 요소, 그리고 내부 공간과의 연계성은 공간 체험에 있어 안전감을 가져다주며, 자연에서 오는 풍부한 재료들은 통합예술교육에 있어 다양한 활동과 사고의 밑거름이 된다.

### 3-1-3. 삶과 상호작용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2'[25]의 비전은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추진 전략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 확대와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다각화되고 있다. 이것은 일상 속에서 예술 활동이 삶과의 보편적 관계를 지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삶과 예술의 통합은 보편적 관계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23) École des Sciences et de la Biodiversité, Boulogne-Billancourt)(2022.8.18.). URL: https://fre.architecturaldesignschool.com/primary-school-sciences-68377

24) Evangelische Gesamtschule. (2022.8.17.). URL: https://stringfixer.com/tags/%E2%80%9Egesamtschule

25)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2, 문화체육관광부, p.11.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질적인 삶과 생애주기별 전환의 목적도 드러내고 있다. 사람들은 표현하는 행위에 대한 본능적 행위가 있다. 셀레스탱 프레네(Celestin Freinet)의 실천 교육학에서는 '예술적 자유로운 표현은 예술가로 성장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삶에 발전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26]라고 했으며, 교육은 삶 속에 이루어지고,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리고 존 듀이(John Dewey)는 '인간의 삶은 환경 속에서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발전하는 과정이며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삶 자체는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험의 전체'라고 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다면 사람들의 예술적 행위는 예술의 전문적 습득하는 것보다 삶에 대한 질적 욕구와 미적 아름다움의 감성을 통한 행복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는 생애주기별 행함에서부터 작용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생애주기별 예술적 체험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발달 단계별 통합적 사고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영유아, 초등학생, 청소년, 성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 4] 통합적 사고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특성**

| 대상 | 프로그램 활동과 영역 | 활동적 의미 |
|---|---|---|
| 유아 | 감각, 조형, 신체, 창의성, 놀이 등으로 다양한 체험으로 긍정적 자아를 통한 아름다움 탐색과 자신의 표현이 가능 | 신체 발달 교육 및 취학 전 교육 활동 성장을 지원 |
| 초등 학생 | 언어, 소리, 움직임, 촉각 등 감각을 다각적 사고를 통한 활동의 활성화, 교과, 예술 장르, 기술 간 통합예술교육을 통해 문화적, 사회적, 전인적 성장을 지향 | 감성과 의지가 상호적 작용을 통해 정신적 성장으로 전환, 상상력과 창의적 성장 지원 |
| 청소년 | 예술교육과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방과 후 활동, 진로 활동으로 예술적 체험과 창의적 표현을 향상 | 추상적 사고 발달, 논리적 자아 향상 및 예술 창의적 표현 |
| 성인 | 다양한 통합예술교육 활동을 통한 창의적, 사회적, 사회 커뮤니티 관계가 형성, 예술을 통한 심리적 치유 통한 삶의 질적 향상 | 일상의 보편적 예술 표현을 통해 사회 네트워크 형성과 자존감 향상 |

26) 정훈, 프레네와 슈타이너 교육에서 예술 활동의 의미: 감각의 측면에서, koran journal of the learning, 2014, sciences, vo. 8, p.161.

먼저 유아 시기에는 예술 체험을 기반으로 통합적 측면에서의 신체적, 감성적, 인지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이다, 예술교육을 놀이로부터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채광과 그림자, 지연 재료의 질감 같은 자연적 요소와 사물, 색감, 장르별 예술 체험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를 통한 아름다움을 탐색하고, 표현하며, 창의적 행동을 즐기면서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도움을 주. 초등학생은 이미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 교과 간 통합, 기술과 예술의 통합 등을 통해 문화적, 사회적, 전인적 인간 성장을 위한 활동을 행해지고 있다. 또한, 창의력이 빠르게 성장 되는 시기이기에 자기표현과 사고로 자아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 청소년기에는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등을 통한 예술 체험으로 논리적 자아 형성과 자신의 진로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성인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각적 지원과 민간기업의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지원으로 개인의 일상에서의 보편적 예술 활동으로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한 창의적, 사회적, 커뮤니티 활동과 심리적 치유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발달 단계별 활동을 종합하자면 유아와 초등학생은 신체발달에 따른 교육 활동과 상상력, 창의력을 성장시켜주면서 학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여 주고 있으며,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사고를 통한 자아와 창의력의 성장을 도와주며, 성인에 있어서는 사회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자존감과 자기 이해, 삶의 의미와 행복 등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며 사회적 활동을 지원한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삶의 상호작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적 영역 즉 교육공간의 확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곧 통합예술교육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새로운 특성으로 양질의 삶에 대한 욕구와 미적 감성을 통한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요구에 대한 충족의 기회를 통합예술교육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 3-2. 내부적 공간 요소

문화예술교육 공간은 기본적으로 예술 전문적 기능 공간을 제외하고 창·제작 공간, R&D 공간, 예술교육 자료 공간, 공유공간,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공간, 세미나실, 소모임 공간, 회의실, 휴식 공간, 교보재실, 운영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통합예술교육 활동적 영역에서 커뮤니티 공간, 비공식과 개별 공간, 탐구 공간, 그룹 공간, 아뜰리에, 전문기능 공간 등으로 구성이 필요하게 된다.

공간은 감각의 체험과 예술 콘텐츠 활동 행위에 따라 써 내부적 공간 요소에서는 다양한 예술 체험과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지는 열린 공간에서의 변화적 가능성에 대한 요소로서의 가변성, 열린 공간에서 물리적, 심리적, 기능적 관점에서의 개방성 그리고 각 기능과 활동별 공간의 유기적 관계에서의 유연성 3가지의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스웨덴 비트라 텔레폰 플랜 학교(vittra telefonplan school)와 한국의 나빌레라문화센터(NaJu Nabillera Cultural Center)의 사례를 통해 내부적 공간 요소들을 집어보고자 한다.

**[표 5] 내부적 공간 요소**

비트라 텔레폰 플랜 학교(스웨덴)[27]

나주나빌레라문화센터(한국)

### 3-2-1. 가변성

가변성은 실내•외 공간의 구조적 형태와 물성에 훼손이 없이 변하는 성질이나 분위기 전환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예술교육공간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가변은 빈 공간에서 예술 창작 활동이나 예술 창작의 결과물 또는 공간 설치물에 따른 공간적 변화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에는 벽, 바닥, 천정의 기본요소에서 가구배치, 조명, 색채, 마감재의 디자인적 요소와 공간에서의 움직임 즉, 학습 활동과 창작의 결과물에 의한 가변적 요소들이 적용된다. 벽은 높이에 따라 공간적 변화의 시각적 가변을 줄 수 있는데, 공간별 기능에 따라 적용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 벽이 낮은 공간은 공간적 구획을 주면서 열린 공간으로서의 커뮤니티가 형성으로 공간의 확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바닥의 마감이나 천정의 높이 변화는 창작의 활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이다. 바닥 마감의 물성에 따라 활동의 제한과 자유로움을 줄 수 있으며, 천정이 높으면 창작적 활동 효과를 더 하며, 낮은 천정은 시각적 위압감을 줄 수 있어 창작이나 움직임 활동에 제약을 준다. 공간 디자인적 요소에서 가구 배치와 구조물 설치에 대한 가변적 요소를 줄 수 있는데, 이동식 또는 조립식, 접이식 벽체와 이동식 가구는 공간 가변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다. 그리고 자연적 채광과 그림자는 생체적 리듬에 변화에 따른 감각 지각에 대한 요소에 영향을 주며, 공간적 다양성과 유희적 효과를 준다. 그 외 디자인적 요소에서 조명, 색채, 마감재 등은 공간별 기능적 정체성과 다양성에 대한 요소로서의 가변적 영향을 준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비트라 텔레폰 플랜학교(vittra telefonplan school)는 2011년도 개교한 학교로 총 건축 연면적 1,900㎡로 9학년까지 약 210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으며 '자유학교'라고 할 정도로 창의적인 다양한 사고 지향하며 운영하고 있다. 교실도 없고 구획하는 벽도 지양한 공간에서 수시로 변형의 가변적 공간으로 구성하여 공간의 기능적인 면을 다용하게 수용하고 있다. 도서관과 전문적 기능의 공간을 제외하고는 벽이 없는 열린 구조로 이동이 편리한 디자인 가구와 가변을 이용하여 유기적 영역의 공유공간 형식으로 공간 안에서 다양한 활동 수 있는 공간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낮은 가벽과 가구는 시각적인 개방성을 주어 공간의 확장을 더 하면서 활동의 사적인 영역과 기능적 특성 영역을 존중하도록 한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자를 중심으로 학습 특성에 적합한 공간 환경을 곳곳에 조성하여 한 공간에서 머무는 형태가 아닌 공간별 유기적 관계를 두어 학습자가 통합적인 활동을 통해 다각적 사고와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기존의 획일화된 학교 수업이 아닌 '물뿌리기', '과시', '동굴', '캠프파이어', '장난감' 등 학교 이념에 따라 도구로 자유로운 학습을 그룹으로 공간을 이동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가구, 학습구역 및 개인 학생을 위한 공간을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구성으로 한 공간에서 영화관, 플랫폼, 휴식공간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가변적 효과를 주고 있다.

### 3-2-2. 개방성

개방성은 공간의 투명성과 확장성에 의한 공간의 연속적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시각적 효과의 연속성에는 물리적, 심리적, 기능적 요소로 적용된다.

먼저 물리적 측면 재료에 대한 물성과 내부의 디자

27) vittra telefonplan school. (2022.8.18.). URL: https://urbannext.net/vittra-school-telefonplan/

인적 요소에서의 가변을 두고 있다. 재료와 구조에 대한 물성은 벽 구조물에 대한 재료, 구조의 특성에 따른 시각적 효과를 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투명한 재료나 다른 공간을 볼 수 있는 벽 구조의 공간으로 열린 공간으로서의 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다. 이것은 공간의 확장을 통한 편안함을 지각할 수 있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공간적 영역과 경계를 최소화하여 공간에서 통합적 사고와 커뮤니티를 형성을 조성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획일화된 공간이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의 상호적 교류와 자유로운 동선의 개방적 요소가 담겨 있어야 한다. 벽체의 영역이 아닌 기둥의 영역으로의 열린 공간은 공간적 확장의 연속성을 준다. 기능적 요소에서의 개방성은 열린 공간에서의 다기능과 다각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 유럽형의 미래학습 공간의 특징으로는 내부 공간 안에서 교환, 발표, 조사, 심화 등 학습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한 공안 안에서의 다양한 학습이 학습자 주도적으로 커뮤니티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코로나19 이후로 개방적 공간혁신은 불가피하다. 열린 공간으로서의 실내에서 외부로 연결하면서 다양한 기능의 공간으로 상호적 작용이 이루어지며, 내부 공간에서도 개방적 요소와 다양한 사고와 예술 창작이 어우러지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초 누에고치에서 명주실을 뽑던 공장에서 광복 이후 적산 공장에서 다시 나주잠사 공장으로 1978년도까지 운영이 되었으나,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을 통해 2017년 10월에 개관한 나주나빌레라문화센터는 총 건축 연면적은 2,187㎡ (부지면적 5,117㎡)로 현재 6개동에서 전시실, 소극장, 동아리 활동공간, 다목적실, 음악창작실, 쉼터, 영상창작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주나빌레라문화센터는 옛 폐공장의 폐쇄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문의 넓은 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여 버스킹을 위한 야외 공연장에서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전체의 공간의 개방성을 높여 주고 있다. 그리고 건물의 폐쇄적 구조의 가려진 벽면 제거하여 기둥이 구획되는 개방적 구조로 시각적 효과를 주고 있다. 활동적 공간 요소인 개방성은 확장된 시간적 효과로 열린 공간으로서의 가시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공간의 확장을 통해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통합예술교육 활동에 있어 동선은 공간의 선순환적 구조로 활동의 연장을 더하게 하며 개별 활동에서 그룹 활동까지의 다양성이 연출되어 커뮤니티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특성 즉 연결성과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게 된다.

**3-2-3. 유연성**

내부적 공간 요소에서의 유연성은 앞서 언급한 개방형의 확장된 공간에서 학습과 사고, 예술 창작 클러스터 공간 기능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2020년 이탈리아 인디레 연구진은 카셀 국제 컨퍼런스에서 '1+4'의 교육 혁신공간에 대해 발표를 했다. 교육적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혁신적인 교육 공간 모델에 가능하는 5가지 교육 환경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하나의 공간에서 커뮤니티 공간과 그룹 공간, 탐구 공간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며, 그룹 공간과 탐구 공간은 개별적 영역의 공간과 소모임, 친교, 교류가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공간과 유기적 관계에서 서로 작용 된다. 이것은 교육공간에서의 모델 적용이지만, 문화예술교육 공간에서 통합예술교육 활동을 적용한 랩 기능의 공간별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유연적 공간은 관계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 창·제작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 실험과 탐구 공간, 개별 공간들이 유기적 관계에서 통합한 공간의 기능에서 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예술적 감각의 다양한 사고와 활동을 더한 새로운 통합형 예술 공간의 혁신적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에는 각 공간별 통합예술교육의 기능에 대한 가변성과 개방성적 기능에서 위에 언급한 유연성의 요소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공간의 통합 기능을 높여야 한다.

비트라 텔레폰 플랜학교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학습 특성에 적합한 공간 환경을 곳곳에 조성하여 한 공간에서 머무는 형태가 아닌 공간별 유기적 관계를 두어 학습자가 통합적인 활동을 통해 다각적 사고와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오디오, 영상, 편집을 위한 스튜디오 등 전문적 기능 공간을 제외하고는 열린 공간 내에서 다양한 공간 영역의 유연한 결합을 통해 통제된 공간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공간이 구성되었다.

한편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는 가, 나, 다동의 공간에서 5개의 다목적실에서 서로의 공간들을 연결하는 유리 통로와 공간을 잇는 유연적 공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연결과 공간적 확장의 효과를 주고 있어 구획이 구분되어있는 공간에서 유연성을 확보하여 교육의 활동성을 이끌고 있는데 효율적이며 각 활동을 연결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각 다목적 공간들은 문이 없어 문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닌 활동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기능적 유연성을 더 해 주고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가변성 그리고 개방성과 함께 통합예술교육을 위한 활동적 내부 공간의 중요한 요소로 통합형 예술 공간의 새로운 특성으로 전인교육과 더불어 양질의 삶을 목표로 하는 통합예술교육을 실질

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해주는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유연성이 통합에 필요한 연결을 통한 소통 공간 기능에 효과를 주고 있다.

## 4. 서서울예술교육센터의 활동적 공간 요소

### 4-1. 서서울예술교육센터의 공간적 특성

자연·사람·예술교육의 가치와 확산을 추구하고자 설립된 서서울예술교육센터[28]는 총 면적 7,586㎡으로 건물 연면적 1,190.17㎡으로 스튜디오 3개, 미디어랩, 프로그램 연구 공간, 예술교육 자료열람실, 로비, 교보재실, 운영사무실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공간은 지상 1층과 지하 1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 1층은 천정과 약 8m로 높아 예술 체험적 공간으로 창의적 활동과 결과물 전시공간의 다양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지하 1층은 외부 수조로 이어지는 공간으로 자유로운 동선과 내부와 야외를 이어주는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표 6]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과거와 현재 모습**

| 구)김포가압장 | 현)서서울예술교육센터 |
|---|---|

서남권인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금천의 7개 자치구 영역을 둔 권역형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서측에서 서서울호수공원과 능골산이 있고, 남서측 방향으로는 온수자연공원과 식물원 등 녹지대와 자연생태 시설이 인근에 자라 잡고 있다. 그리고 공항 제3지구로 김포공항의 비행 이·착륙 경로로 비행기의 이동을 쉽게 볼 수 있으며, 비행기 소음도 항상 들을 수 있는 장소이다. 주변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대부분 중·저층의 주거 밀집으로 된 지형적 특징이 있다.

**[표 7]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단면도와 평면도**

| 지상 1층 | 지하 |
|---|---|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역사적 상징성과 장소적 다양성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옛 가압장의 역사적 장소적 상징성과 현재의 예술교육센터라는 장소적 기능으로 예술 체험과 창작 발표 등 다양한 콘텐츠의 지역 예술교육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주변은 녹지대와 외부 공간인 수조가 있어, 자연 환경적 요소와 개방적 열린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외부 공간인 수조는 실내와 외부를 연결해 주는 매개 공간으로 빈 공간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휴식과 여가 생활을 즐기는 시민 놀이터로 조성되어 있다.

건물의 외형은 수평적 구조로 되어있으며 예술교육 자료열람실과 미디어랩 등의 공간은 지상 1층과 오픈되어있어 천정과 높이가 12미터가 되어 수직적 공간 확장의 시각적 효과를 주고 있다. 주로 어린이 이용객이 많으며 청소년, 성인,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주요 프로그램은 미래 지향적 이슈의 생태파괴, 미세먼지, 자연생태 등의 주제를 담은 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술놀이LAB'과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인·물적 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대표 프로그램과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과 육성하는 '커뮤니티LAB'으로 구성되어있다. 'LAB'의 기능으로 모든 프로그램은 연구를 통한 연구·실험·개발·운영·확산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리뉴얼 전략 연구 결과[29]에 따르면 공간 조성 방향

28) 서서울예술교육센터의 이전에 건물이었던 김포가압장은 1979년 신축이 되어 팔당호 원수를 공급받아 신월정수장((현)서서울호수공원)으로 보내주어 하루 12만t의 수돗물을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 공급하였다가 2003년 영등포정수장의 설립으로 그 기능이 넘어가면서 방치되었다. 이후 2014년 서울시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조성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하여 2016년 10월 국내 최초의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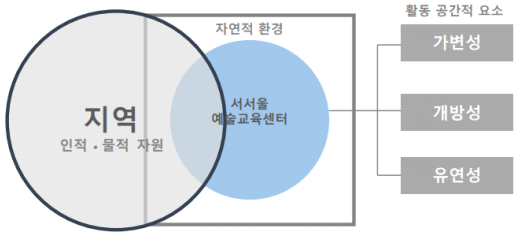
으로는 '자연 속 살아있는 빈 공간'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공간의 가변적 공간의 방향과 '놀이'와 '흐름'의 공간적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간적 특징인 '수조'가 상징적 장소로서 공유와 교류의 공간으로 조성 방향과 감각과 융합을 통한 공간의 콘텐츠화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 4-2. 서서울예술교육센터의 활동적 공간 요소

서남권의 권역을 둔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지역사회와 자연적 환경 요소에 밀접한 관계 형성이 되어있다. 먼저 지역과 거리적 관계에서 양천구에 소재로 1㎞ 이내 강서구, 4㎞ 이내 구로구, 6㎞ 이내에 영등포구, 9㎞ 이내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가 들어온다. 2020년 자료에 의하면 프로그램의 참여자 중 60% 이상이 양천구와 강서구의 구민으로, 70% 이상이 영등포구와 구로구 포함된 구민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적 요소로는 센터 건물과 외부의 수조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열린 공간으로 이미지의 반면에, 건물 블록의 외벽 마감재와 적은 개구부로 건물의 폐쇄성도 가지고 있다. 또한, 1층 정문 출입구를 제외하고 다른 출입구의 접근성이 떨어서 자유로운 동선에 제한도 있다.

1979년도 가압장 용도의 건물을 리모델링 한 건물로 구조적 문제로 인한 공간 기능적 활동성과 효율성을 위한 증축이나 공간 확장도 어려운 건축의 단점도 문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에는 중·장기적 계획으로 행정적 절차와 예산 확보가 필요하여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단기적 계획으로는 통합예술교육 활동을 지향하면서 앞서 언급한 외부적 공간 요소와 내부적 공간 요소를 적용하여 권역별 거점 예술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외부적 공간 요소부터 분석해보면 지역사회와 연계성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한 운영 활성화가 되기 위해 지역의 인·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함께 소통하고 협력을 하는 운영 주체자들의 커뮤니티 활동 체계 유지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주변 환경에 비해 다소 폐쇄적인 동선 유도로 인해 협력적 관계를 저하하고 있다. 이는 건물 외형에서 폐쇄적 블록의 이미지와 일방적 출입구 동선으로 파악이 된다. 이것은 지역 협력 운영 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한 폭넓은 관계 맺음과 지역 중심으로 주체적 커뮤니티 활동의 확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예술가와 시민 그리고 예술교육 관련자들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 교류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예술교육 거점 공간의 플랫폼으로서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커뮤니티 공간에서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예술교육센터와 유기적 운영 관계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육성을 통해 지역의 이야기와 지역사회 문제점에 함께 해결해 가는 실천적 사회 가치를 담은 예술교육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




**[그림 4] 활동 공간 요소 개념도**

자연 환경성에서는 주변의 능골산, 서서울호수공원과 더불어 예술교육센터 건물, 외부 수조 공간을 제외한 녹지대로 조성되어 자연환경으로 최적의 공간으로 되어, 자연 생태적 특화 콘텐츠 개발과 환경 조성에 이상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녹지대나 호수공원을 연결하는 환경과 부합한 매개적 공간이 협소하여 활동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 수조와 녹지대를 연계해 주는 예술 체험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학습공간과 자연적 환경에서 친환경적 예술 체험을 통해 빛, 소리, 공기 등 자연의 재료들을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다양한 창의적 표현과 사고를 통해 자연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생태학습공간을 확보한다면 녹지대와 호수공원에 인접한 생태 수업과 자연 재료의 요소를 차시별 야외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생태에 대한 친화적 체험과 경험을 통한 창의적 사고 성장을 더 할 것이다. 그리고 삶의 상호관계성에서는 최초 개관할 당시의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주요 참여 계층이 아동과 청소년 대상 예술교육공간으로 조성이 되었다. 2017년도부터 학교 참여 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 참여율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청소년 참여가 낮아지는 현상이 있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공간 폐쇄로 인한 참여율 최저로 낮아지고 있었다. 현재는 대면 프로그램과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다시 운영되면서 가족 단위의 참여율이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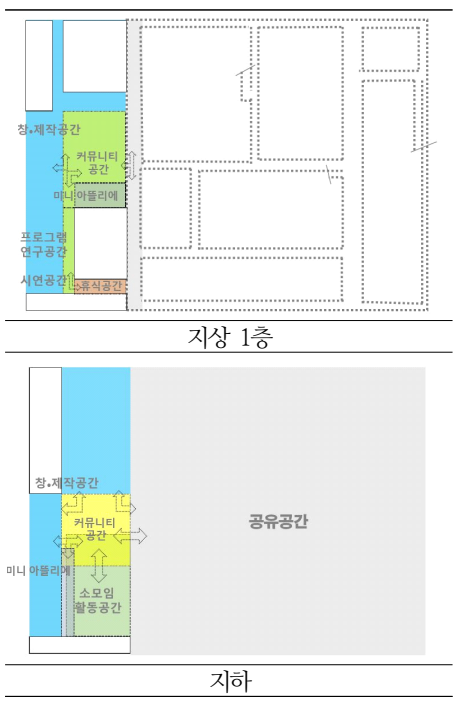
29) 2020년 12월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중·단기 계획수립을 위해 진행된 연구

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지역사회 연계와 'LAB' 기능을 바탕으로 지역 특화 프로그램과 생애주기별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육성을 통해 발달 단계별 다양한 대상층 참여를 통해 일상 속 보편적 예술체험으로 삶과 상호적 작용을 통해 평생진로와 사회 커뮤니티 형성, 심리적 치유 등 사회생활의 활력소로서 역할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연계, 자연 환경과의 조화, 삶과 상호적 관계에서의 통합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센터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일상에서 보편적 예술교육의 활동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센터 내부적 공간 요소에서는 서서울예술교육센터가 가지고 있는 공간면적 부족과 영상, 온라인 콘텐츠 제작 전문기능의 공간 부재인 한계점이 있지만, 지금의 공간에서 가장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공간의 가변성은 빈 공간 안에서 학습자 중심의 공간으로 여러 장르 예술 창작 및 체험 활동을 통한 공간이 채워지는 듯이 다변화적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유희적 공간의 운영으로 학습자와 방문 시민에게 공간 다각적 기능을 체험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의 결과물과 아뜰리에 공간 조성으로 소모임과 개별 활동이 활발하면서 공간의 영역을 벗어서 한 공간에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서울예술교육센터의 개방적 측면에서의 공간구조를 살펴본다면 획일화된 스튜디오 3개와 그룹 공간인 미디어랩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와 예술교육자료열람실 등 구성으로 되어있으며, 지하 로비는 외부 수로로 나가는 매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개방성의 물리적 측면에서는 벽체를 최소화하며, 이동식 무빙월과 가구로 이동 배치를 통한 열린 공간을 기본으로 스튜디오 공간과 외부 수조 공간의 유기적 활동을 위한 매개적 영역에서의 디자인 개선이 불가피하다. 이를 통해 공간 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시각적 효과와 공간 조성을 통해 공간의 확장이 확보되어야 한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1층 로비와 휴게공간, 지하 로비와 예술교육 자료열람실 영역의 구획을 최소화하고 동선의 자유로움과 예술 활동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스튜디오와 로비 공간의 연계를 통해 열린 공간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 유기적 관계를 통해 다각적 사고와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되어야 한다. 심리적 측면에서의 요소들을 결합한 열린 공간에서 기능적 측면에서 개방성은 통합예술교육의 학습자는 개별 활동에서 비공식적 모임, 커뮤니티 활동, 그룹 활동, 탐구와 실험 활동 등을 학습하며 통합된 기능이 형성되어야 하며, 실내 공간에서 외부 수조로 연결하면서 공간 기능의 다양성을 확보되어야 하며 상호적 작용으로 내부 공간에서도 개방적 요소와 예술적 사고와 예술 창작이 어우러지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 내부적 공간 요소의 유연성은 각 공간의 유기적 관계에서 예술 창작의 다양한 표현과 공동학습을 통한 학습자의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공간 간 기능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기능적 통합, 장르적 통합의 최적화된 공간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실내와 외부 공간인 수조, 녹지대, 그리고 호수공원의 학습장소와 유기적 관계에서 공간 간에 상호적 작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성된 유기적 공간 기능은 현재 면적이 부족한 창·제작 스튜디오 공간의 확장성과 통합예술교육 활동 지향점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표 8] 공간 요소를 적용한 활용계획**




이러한 공간적 요소를 평면을 통해 세부적 운영 방향을 정리하자면, 외부 수조는 모두가 이용할 수는 시민 놀이터로서 공유공간의 기능으로 지역사회 연계와 자연 접근을 통한 일상적 요소에 중요한 공유공간이 된다. 자유로운 동선에 의한 움직임의 활동과 자연이 주는 환경적 요소에 의한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다만 현재 좁은 출입구의 개선을 통해 만남의 공간과 다양한 활동과 기능 공간으로서 거점 플랫폼의 개방적 요소에 가장 특수성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공유공간의 외부 수조는 센터 내부와 외부를 연결해 주는 매개 공간의 역할로 통합예술교육의 활동적 특성을 극대화할 수 공간 이기도 하다.

실내 공간의 활용 방안은 창·제작 공간인 스튜디오와 미디어랩 공간에서 프로그램 기능을 유기적인 관계와 연결성을 주어 통합 활동에 지원하며, 각 공간별 특성 및 주제의 통합을 통해 다양한 학습을 유도한다.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의 영역 확장을 통해 소모임과 휴식, 개별 활동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개방적 요소를 통해 커뮤니티 활동과 주도적 자기 개발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층별 미니 아뜰리에 공간을 두어 공간별 부족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며, 공동의 창작지원, 커뮤니티 예술의 확장된 기능을 더 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적 공간 요소와 변화는 권역별 거점 공간으로서 서서울예술교육센터의 다소 작은 면적의 공간을 확장 시켜고, 다기능적 공간 개선을 통해 통합예술교육 활동의 다양한 예술 체험을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통합예술교육 관점에서의 외부적 요소와 내부적 요소는 서로가 상호작용를 통해 상보적 관계에서 실내 · 외의 공간 간의 기능적 효과를 높여 주며, 통합예술교육의 공간의 최적화 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통합예술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공간 구성의 요소에 대한 연구로 서서울예술교육센터를 공간 운영을 대상으로 통합예술교육에 필요한 활동적 공간 요소 연구를 통해 권역별 거점으로 문화예술교육 공간의 앞으로 운영에 대한 공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통합예술교육 활동에 있어 외부적 공간 요소와 내부적 공간 요소는 장르의 통합, 교과와의 통합을 넘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 서울 서남권인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금천까지 7개 자치구 영역을 둔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미래 지향적 통합예술교육의 특화된 공간을 통해 장소와 환경, 기능에 부합한 공간으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통합예술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활동적 특성을 충족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연구를 통하여 돌출된 활동적 공간 요소들을 중심으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외부적 요소에서 지역 협력 운영 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한 폭넓은 관계 맺음과 지역 중심으로 주체적 커뮤니티 활동의 확장, 생태학습공간을 확보, 자연생태 특화 프로그램과 생애주기별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육성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내부적 요소로는 실내·외 공간의 유기적 관계에서의 프로그램 활동 영역의 예술 창작 활동의 자율성 확보 및 개방적 구조와 자유로운 동선 개선을 통해 외부로부터 접근성 유도 및 예술교육 콘텐츠 연구·개발·실험·활동·확산을 위한 지원공간으로 역할 수행을 한다. 아울러 서서울예술교육센터의 활동적 공간 요소를 위한 지향점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하여 연구자는 통합예술교육의 활동적 공간 요소로서의 운영 방향에 도달할 수 있었다.

첫째, 외부적 공간 요소와 내부적 공간 요소에 부합한 공간의 특성과 환경을 담은 디자인 개선과 공간 기능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예술가와 주민 그리고 예술교육에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며 협업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역할의 기능적 환경 조성으로 권역적 거점 예술교육공간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예술가의 프로그램 연구, 개발, 운영, 확산의 LAB 기능 공간으로 예술 창작지원 공간과 시민들의 예술 향유 공간으로 '자연 속 빈 공간'의 열린 공간으로 시민의 예술 창작과 예술 체험에서 나오는 과정이나 결과물로 채워나가는 시민 예술공간의 인식과 자연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친환경적 요소의 생태학습공간 조성, 외부 수조 공간과 내부 센터 공간 연결을 위한 자유로운 동선과 출입구 개선의 구조적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폐쇄적 인식에서 개방적 공간의 인식 전환으로 접근성을 확대를 통한 삶 속에 묻어나는 예술교육공간의 친화적 공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 디자인적 개선을 통해 내부적 요소의 가변성, 개방성, 유연성의 요소들이 적용된 공간 운영이 되어야 한다.

둘째, 통합예술교육 활동공간으로 지역 인·물적 자원 연계와 예술가, 시민의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고와 주제를 중심으로 한 통합예술교육 콘텐츠 개발과 육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천예술교육 확산이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와 예술가가 주체가 되어 다채로운 창작활동과 예술적 사고가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공간으로서의 조성을 통해 지역 거점 예술교육공간의 플랫폼 역할이 수행되어야 한다. 예술 전문지식의 습득하는 교육의 형태에서 벗어나 확대된 범위에서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예술 창작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와 자연적 환경의식, 생애주기별 예술교육을 통한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한 시민력 향상을 위한 예술교육으로써 공간 환경이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서울시의 예산지원과 통합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한 스튜디오 55㎡로 움직임의 활동을 기준으로 13명 정도 공간이다. 이는 학교가 참여 했을 때 한 학급이 수용될 수 없는 공간이다. 따라서 학교 참여가 있을 시 분반을 하여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권역별 거점 예술교육공간에 역할을 수행을 위한 시연공간과 창·제작 공간, 세미나실, 커뮤니티 활동공간, 지역 R&D 공간 등 부족한 공간에 대한 확장과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 대한 인식과 대응할 수 있는 과학과 예술 통합으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 전문기능 공간 신설을 위해서라도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운영방안은 통합예술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특성으로 귀결되는데, 이를 통한 미래 예술교육의 지향점을 둔 통합예술교육 활동공간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1. 김진숙 외,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리뉴얼 전략 연구보고서', 서울문화재단, 2020
2. 김혁진 외, '2017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예술교육진흥원, 2018
3. 알베르트 수스만, 서유경, 12감각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 입문, 푸른씨앗, 2016
4. 백령, '통합예술교육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5. 유형준, 공간의 미래(코로나가 가속화 시킨 공간의 변화), 을유문화사, 2021
6. 존 듀이, 엄태동, '존듀이의 경험과 교육', 피와이메이트, 2001
7. 곽덕주, 박혜연, 문화예술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통합'과 '융합' 개념 탐색: 실험적 소고, 문화예술교육연구, 2021. 제16권. 제1호.
8. 허정임, 체험으로서의 예술 중심 통합교육 연구,미술교육연구논총, 2014. Vol.38.
9. //arte365.kr/?p=94220
10. //innerview.tistory.com/50
11. //stringfixer.com/tags/%E2%80%9Egesamtschule